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삼달1리 삼달1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오해옥(여, 1933년생, 성산읍 삼달1리)

제보자2: 김갑순(여, 1939년생, 성산읍 삼달1리)

- 줄거리: 계모가 본처 자식인 딸에게는 콩만 먹이고 자신의 딸에게는 팥을 먹였다. 계모는 본처 딸을 괴롭히기 위해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을 까마귀와 새가 도와준 이야기이다.

[제보자2] 어멍 난 얘기도 잇고 놈이 어멍 난 얘기도 잇인디. 훈디 살젠 허난, 이녁 난 애 긴 맛 좋은 걸로 끓만 주고, 저 족은어멍 난 얘긴 비령내고 맛 엊인 걸로 콩만 주니깐, 이녁 얘긴 좋은 것만 주당도 막 줄언 술이 아니 올르고, 미우멍 콩만 멱인 콩데긴 막 술지고 건강하고 경 헷젠허는 거. [웃음]

[제보자1] 요새 곧으민 계모주. 훈 아방에 어멍이 둘이라. 근디 딸이 먼저 난 것은 콩데기 고 아니 끓데기고 또 이녁 건 콩데기라 헌 게.

무사 데기렌 헷인고 허믄, 콩은 영양가가 잇는 거고 팟은 영양가가 없는 건 디. 맛이 잇이난 걸 이녁이 난 걸 주당 보난 끓데기가 웨불고, 또 콩데기는 맛 은 엊어도 영양가가 잇인 거라 부난 막 콩데기가 됫는디.

하루는 그 마을에 잔치가 잇이난, 이녁 난 걸 둘앙 가젠허난, 콩데기?라 벌 을 주는 거라.

“너는 터진 항에 물을 혼 항 질어다 노라.”

또 끓데기는 데령 가고, 게난 터진 항에 물을 저물앙 질어다 놔봐도 밋이 터 져부난 항을 못 ?득은 거라. 쟁 헹 또 이제 가마귀가 왕, 나이 엊어부난 말 곤 지 못 헹. 가마귀가 왕 까악까악하면서,

“구렁 질라. 구렁 질라.”

항아리 깨진 걸 때왕 질라. 요새 말 곧으민 땀질헹 노라 허는,

“구렁 질라. 까악. 구렁 질라. 까악.”

허난 이 놈으 가마귀 무시거렌 골없이, 구렁 지라 까악까악 헌 말,

“구렁 질라. 까악. 구렁 질라. 까악.”

허는 말 오래 들어가난, 헤독을 헤네. 항아리에 물을 그득았다. 그득이난 잔치허는 디 어멍따라 계모따라 갓는디, 또 벌을 준다고, 피라 하는데, 옛날 피곡석, 지금도 피가 잇지. 그 피를 아홉 명석 널어동 가멍.

“너는 방에 져그네 쓸을 다 장만허라.”

거난 것도 벌을 줘동 가난. 또 생이가 알아들언. 하늘에서 내룬 거주. 생이가 와그네. 와다다다다다 허난 멍석에 피 는 거 와다다다다허민.

“아이고 이 놈으 생이야. 나 그 피 다 방에 지어그네 쓸 봐서 혈 건디. 어떻 혈 거냐?”

허난, 파르릉허게 놀아난 피는 판찍허고 쓸만 살락헌 거라.

게난 그 다슴애기 좋은 데 시집도 가고, 이녁 난 애긴 애끼멍 끗만 주고, 잔치집이 다 돌양 뎅기멍 줘도, 그건 벌을 받안 그랬다 허는 거.

- 핵심어 : 콩데기, 끗데기, 콩, 끗, 족은어멍, 항아리, 까마귀, 생이, 가마귀, 새, 다슴애기